

# 痰嗽에對한 文獻的 考察

崔 善 燁 · 韓 相 桓

## I. 諸 論

痰嗽란 《東醫寶鑑》<sup>3)</sup> 《石唐漢醫學》<sup>6)</sup> 等의 文獻에 따르면 濕痰在胃 上干於肺로 나타나는 痰出嗽止 胸膈多滿 嘶動 便有痰聲하는 症狀을 가지는 咳嗽의 一種으로서, 《萬病回春》<sup>4)</sup> 《普濟方》<sup>5)</sup> 《儒門事親》<sup>7)</sup> 《醫學入門》<sup>12)</sup> 《濟衆新編》<sup>16)</sup> 《證治準繩》<sup>20)</sup> 《惠庵醫方》<sup>22)</sup> 等 其他 여러 文獻에서 痰嗽에 對한 記錄이 있었으며, 累하여 그 原因 症狀 및 治法이 각각 收錄되어 있었다.

이에 本人은 痰嗽의 原因 症狀 및 治法에 대하여 文獻的 考察을 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調查資料 및 研究方法

### 1. 調查資料

調査資料는 痰嗽가 記錄된 文獻을 古典文獻 16種으로 부터 最近에까지 刊行된 6種등 總22種의 文獻을 對象으로 하였다.

### (1) 古典文獻

張 介 寶 : 景岳全書  
癸丑文化史編 : 校正明醫指掌  
許 清 : 東醫寶鑑  
龔 延 賢 : 萬病回春  
周 定 王 : 普濟方  
張 子 和 : 儒門事親  
周命新編著 : 醫門寶鑑

黃 道 淵 : 醫宗損益  
何 夢 瑤 : 醫偏  
樓 英 : 醫學綱目  
李 挺 : 醫學入門  
羅 浮 道 人 : 赤水玄珠  
康 明 吉 : 濟衆新編  
王 肯 堂 : 證治準繩  
鄭 澄 編 : 春鑑錄  
吳 得 泳 : 惠庵醫方

### (2) 現代文獻

韓 南 栄 : 石塘韓醫學  
丹 波 元 堅 編 : 雜病廣要  
金 完 熙 等 編 : 臟腑辨證論治  
上海 中醫 學院編 : 中醫內科學  
長春中醫學院等編 : 中醫診斷學  
楊 醫 竝 編 : 中醫學問答

### 2. 研究方法

研究方法은 調査 文獻에서 痰嗽에 關한 記錄이 있는 文獻을 그 原因 症狀 및 治法에 따라 分類해서 調査 整理하였다.

## III. 調査內容

### 1. 痰嗽의 原因

調査文獻은 總 17種으로 《東醫寶鑑》<sup>3)</sup> 《石塘韓醫學》<sup>6)</sup> 《春鑑錄》<sup>21)</sup> 《惠庵醫方》<sup>22)</sup>

에서 痰嗽의 原因이 “濕痰在胃 上干於肺”<sup>註1)</sup> 라 하였으며 《東醫寶鑑》<sup>3)</sup> 《醫學入門》<sup>12)</sup> 《臟腑辨證論治》<sup>14)</sup> 《中醫內科學》<sup>17)</sup> 《中醫診斷學》<sup>18)</sup> 《中醫學問答》<sup>19)</sup> 《春鑑錄》<sup>21)</sup> 에서는 同一하게 “痰濁이 肺를 犯하여 發生”<sup>註2)</sup> 한다고 하였다.

또한 《石塘韓醫學》<sup>6)</sup> 에서는 “肝木克脾土하여 風痰이 雍成”<sup>註3)</sup> 하여 痰嗽가 發生 한다고 하였으며 《儒門事親》<sup>7)</sup> 에서는 “飲食厚味熱痰之致”<sup>註4)</sup> 라고 했고, 《校正明醫指掌》<sup>2)</sup> 에서는 “火가 動하여 逆上하여 昨嗽”<sup>註5)</sup> 한다고 하였다.

《萬病回春》<sup>5)</sup> 에서는 “脾虛”<sup>註6)</sup> 가 痰嗽의 原因이라 하였고, 《普濟方》<sup>5)</sup> 에서는 “濕發爲痰인데 風痰, 热痰, 濕痰, 氣痰, 寒痰”<sup>註7)</sup> 이 主原因이라 하였다.

《證治準繩》<sup>20)</sup> 에서는 “飲食失節 致肝氣不利而肺”<sup>註8)</sup> 가 原因이며, 《醫學綱目》<sup>11)</sup> 에 수록된 原因을 보면 “脾濕이 動하여 痰이 되어 發生”<sup>註9)</sup> 한다고 했다.

또한 《赤水玄珠》<sup>15)</sup> 에서는 “食積生痰”<sup>註10)</sup> 하여 發生 한다고 하였으며, 《醫學入門》<sup>12)</sup> 에서는 “秋傷於濕 冬必咳痰嗽”<sup>註11)</sup> 한다고 하였다. (Table 1 參照)

## 2. 痰嗽의 症狀.

調查文獻은 總 18種으로 《東醫寶鑑》<sup>3)</sup> 《醫宗損益》<sup>10)</sup> 《醫學入門》<sup>12)</sup> 《濟衆新編》<sup>16)</sup> 《春鑑錄》<sup>21)</sup> 《惠庵醫方》<sup>22)</sup> 에서 同一하게 痰嗽의 症狀을 “痰出嗽止 胸膈多滿”<sup>註1)</sup> 이라 했다.

《校正明醫指掌》<sup>2)</sup> 《東醫寶鑑》<sup>3)</sup> 《萬病回春》<sup>4)</sup> 《石塘韓醫學》<sup>6)</sup> 《醫門寶鑑》<sup>8)</sup> 《醫學綱目》<sup>11)</sup> 《雜病廣要》<sup>13)</sup> 《惠庵醫方》<sup>22)</sup> 에

TABLE 1. 痰嗽의 原因

書名	內用
주1) 春鑑錄 東醫寶鑑 石塘韓醫學 惠庵醫方	濕痰在胃 上于於肺
주2) 春鑑錄 東醫寶鑑 中醫內科學 醫學入門 中醫診斷學 脏腑辨證論治 中醫學問答	痰濁犯肺 痰鬱肺經
주3) 石塘韓醫學	肝木克脾土 風痰壅盛
주4) 儒門事親	飲食厚味 热痰之致
주5) 校正明醫指掌	火動逆上作咳
주6) 萬病回春	咳而痰多者是脾虛也
주7) 普濟方	濕發而爲痰 風痰 热痰 濕痰 氣痰 寒痰
주8) 證治準繩	飲食失節 致肝氣不利而肺
주9) 醫學綱目	動脾濕而爲痰
주10) 赤水玄珠	食積生痰
주11) 醫學入門	秋傷於濕 冬必咳痰嗽

서는 “嗽動便有痰聲 痰出則嗽止”<sup>註2)</sup> 라 하였는데, 《校正明醫指掌》<sup>2)</sup> 에서는 註<sup>2)</sup> 外에 “胸滿 涕多”<sup>註3)</sup> 의 症狀이 있다.

한편 《石塘韓醫學》<sup>6)</sup> 에도 註<sup>2)</sup> 的 症狀 以外에 “脈浮滑 胸膈滿 痰涎多 或 寒熱交作 面

浮如盤”<sup>註4)</sup>의 症狀이 收錄되어 있다.

《醫經》<sup>10)</sup>에는 “痰出嗽止痰甚者 外作寒熱”<sup>註5)</sup>이라 했고, 《臟腑辨證論治》<sup>14)</sup>에서는 “咳嗽 氣喘 痰多 胸滿悶 喉中痰鳴 舌苔膩 脈滑”<sup>註6)</sup>하다 하였다.

《赤水玄珠》<sup>15)</sup>에서는 “人面青白黃色不常面上如蟹爪路 一黃一白”<sup>註7)</sup>이라 했고, 《中醫內科學》<sup>17)</sup>에서는 “咳嗽痰多 胸脇作悶 脈滑濡”<sup>註8)</sup>라 했다.

또한 《中醫診斷學》<sup>18)</sup>에서는 “咳嗽痰多痰出咳停 痰白而稀 胸悶脇痞 納呆便溏 苔白而脈濡滑”<sup>註9)</sup>이라 했고, 《春鑑錄》<sup>21)</sup>에는 “涎多 寒熱交作而痰嗽”<sup>註10)</sup>라고 했으며, 《惠庵醫方》<sup>22)</sup>에서는 또한 “涎多”<sup>註11)</sup>라고 하였다.

(Table 2 參照)

TABLE 2. 咳嗽의 症狀

書名	內用
주1) 春鑑錄 東醫寶鑑 醫宗損益 醫學入門 濟衆新編 惠庵醫方	痰出咳止 胸脇多滿
주2) 校正明醫指掌 東醫寶鑑 萬病回春 醫門寶鑑 醫學綱目 雜病廣要 惠庵醫方 石塘韓醫學	咳嗽便有痰聲 痰出則咳止
주3) 校正明醫指掌	胸滿 涎多
주4) 石塘韓醫學	脈浮滑 胸脇滿 痰涎多 或寒熱交作 面浮如盤

주5) 醫碥	痰出咳止 痰甚者外作寒熱
주6) 脏腑辨證論治	咳嗽 氣喘 痰多 胸滿悶 喉中痰鳴 舌苔膩 脈滑
주7) 赤水玄珠	人面青白黃色不常 面上如蟹爪路 一黃一白
주8) 中醫內科學	咳嗽多痰 胸脇作悶 脈滑濡
주9) 中醫診斷學	咳嗽痰多 痰出咳停 痰白而稀 胸悶脇痞 納呆便溏 苔白膩 脈濡滑
주10) 春鑑錄	涎多 寒熱交作而痰嗽
주11) 惠庵醫方	涎多

### 3. 痰嗽의 治法

調查資料는 總 10種으로 《景岳全書》<sup>1)</sup>에는 “治痰爲先으로 하되 治痰하는데는 반드시 順氣爲主로 하는데 이에는 南星·半夏 等으로 그痰을 勝하면 咳嗽가 저절로 낫는다.”<sup>柱1)</sup>라고 하였다.

《校正明醫指掌》<sup>2)</sup>에서는 “治火·治痰”<sup>柱2)</sup>이라 했고, 《萬病回春》<sup>4)</sup>에는 “治上焦痰盛”<sup>柱3)</sup>이라 하였으며, 《普濟方》<sup>5)</sup>에서는 “治痰爲先 勝其痰”<sup>柱4)</sup>이라 했다.

《儒門事親》<sup>7)</sup>에는 “吐之後 化痰”<sup>柱5)</sup>하라

했고, 《雜病廣要》<sup>13)</sup>에서는 “燥脾化痰”<sup>6)</sup> 하라 하였으며, 腸腑辨證論治<sup>14)</sup>에는 “健脾燥濕瀉肺滌痰”<sup>7)</sup>라 하였고, 《中醫內科學》<sup>17)</sup>에서는 “健運脾胃 清肺化痰”<sup>8)</sup>하라 하였다.

《中醫診斷學》<sup>18)</sup>에는 “健脾燥濕 化痰止嗽”<sup>9)</sup>라 했고, 《中醫學問答》<sup>19)</sup>에서는 “補益肺氣 滌化痰濁”<sup>9)</sup>라 하였다. (Table 3 참조)

#### IV. 總括 및 考察

痰嗽에 對하여 16 種의 古典文獻과 6種의 現代文獻을 調査하여, 그 原因 症狀 및 治法을 總括 考察해 보면과 같다.

##### 1. 痰嗽의 原因

- 1) 濕痰이 胃에 머물러 不行하면 上으로 肺에 들어가 痰嗽가 發生한다. 註<sup>1)</sup>
- 2) 食積生痰하여 咳嗽가 發하게 된다. 註<sup>10)</sup>
- 3) 脾虛하면 生痰하여 咳嗽하게 된다. 註<sup>6)</sup>
- 4) 肝木克脾土하여 風痰이 塗成하게 되면 一 種의 痰嗽가 나타나게 된다. 註<sup>3)</sup>
- 5) 外因性으로 秋傷於濕하여 積於肺하면 冬節에 痰嗽가 發한다. 註<sup>6)</sup>

以上에서와 같이 痰嗽의 原因 中에서 外因性으로는 秋傷於濕하여 發生하지만, 그 外 대부분의 原因은 內因性으로 볼 수 있으며 飲食失節·脾虛·脾濕·食積 等으로 痰生하여 肺를 犯하여 痰嗽가 發生함을 알 수 있었다.

##### 2. 痰嗽의 症狀

- 1) 痰出嗽止胸膈多滿嗽動便有痰聲 註<sup>1)2)</sup>
- 2) 痰涎多하다. 註<sup>3)4)10)11)</sup>
- 3) 脈浮滑或寒熱交作 面浮如盤한다. 註<sup>4)5)</sup>

以上에서 痰嗽의 症狀을 살펴 본 바와 같이

TABLE 3. 咳嗽의 治法

書名	內用
주1) 景岳全書	治痰爲先 治痰者必以順氣爲主 是半夏勝其痰而咳嗽自愈
주2) 校正明醫指掌	治火 治痰
주3) 萬病回春	治上焦痰盛
주4) 普濟方	治痰爲先 勝其痰
주5) 儒門事親	土之後化痰
주6) 雜病廣要	燥脾化痰
주7) 腸腑辨證論治	健脾燥濕 滌肺瀉痰
주8) 中醫內科學	健運脾胃 清肺化痰
주9) 中醫診斷學	健脾燥濕 化痰止咳
주10) 中醫學問答	補益肺氣 滌化痰濁

痰嗽는 痰이 出하면 咳嗽가 멈춘다는 것이 特徵이며, 胸膈은 대체로 滿悶하여, 咳가 動하면 痰聲이 있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痰涎이 많은 것이 特徵이고, 脈은 대체로 浮滑하며 或然之症으로 寒熱이 交作하고 面浮하는 症狀이 나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痰嗽의 治法

- 1) 治痰을 先으로 하되 治痰하는 데는 順氣·化痰을 為主로 한다. 註<sup>1)2)3)4)6)</sup>

- 2) 建脾操濕 鴻肺滌痰으로 治한다. 註<sup>7)</sup>  
3) 建運脾胃 清肺化痰을 為主로 한다. 註<sup>8)</sup>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痰嗽의 治法은 먼저 治痰을 先으로 하되 治痰過程에서 順氣·化痰을 為主로 하며 아울러 痰을 生成하는 臟器인 脾와 連關係에서 健脾燥濕하며, 肺와 關連되어 清肺化痰함을 알 수 있었다.

## V. 結論

痰嗽에 對한 古典文獻 16種과 現代文獻 6種等 總 22種의 文獻을 分類調查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痰嗽의 原因은 大부분 内因性으로써 飲食失節·脾虛·脾濕·食積 等으로 因하여 痰이 生하여 肺를 犯하게 되어 發生하게 된다.
2. 痰嗽의 症狀은 痰이 出하면 咳가 止하고, 胸脇多滿하며 痰涎이 많고, 咳動便有 痰聲하는 것이 그 主 症狀이다.
3. 痰嗽의 治法은 治痰을 先으로 하되 建脾燥濕·清肺化痰·順氣를 為主로 한다.

## 參考文獻

1. 張介賓: 景岳全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上冊 3 4 1.
2. 癸丑文化社編: 校正明醫指掌, 서울, 癸丑文化社, 1974年, P. 卷三의 八
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1年, P. 467, 472.
4. 薦延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5 P. 121

5. 周定王: 普濟方, 서울, 輸成社, 1981년, P. 1741, 1784-1786
6. 韓南洙: 石塘漢醫學, 全南光州, 國際印刷工業社, 1985年, P. 502.
7. 張子和: 儒門事親, 서울, 古典漢醫學研究會, 1987年, P. 110.
8. 周命新編著: 醫門寶鑑,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7년, P. 139.
9. 黃道淵: 醫宗損益, 서울, 醫藥社 1976年, P. 494 - 501.
10. 河蒙璽: 醫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3年, P. 91-92
11. 樓英: 醫學綱目, 臺南, 臺南北一出版社 P. 卷 26의 1 - 3.
12. 李梃: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1 P. 外漢卷二 65.
13. 丹波元堅編: 雜病廣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P. 835.
14. 金完熙等編: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85年 P. 268-269
15. 羅浮道人: 赤水玄珠, P. 卷 7 의 1 - 11
16. 康明吉: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75年 P. 175
17.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1977年 P. 12-15.
18. 長春中醫學院等編: 中醫診斷學, 吉林省, 吉林人民出版社 1984年 P. 200.
19. 楊醫亞編: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P. 116
20. 王肯堂: 證治準繩,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44年 P. 564-566, 570
21. 鄭瀅編: 春鑑錄 P. 乾 41
22. 吳得泳: 惠庵醫方, 서울, 醫藥社 1978年 P. 94 - 95.

## A B S T R A C T

### The Bibliographic Study of Dam su ( 痰嗽 )

Choi, sun yup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 Kw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Han, Sang Wha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Dam Su ( 痰嗽 ) by referring to 22 docum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

1. Dam Su ( 痰嗽 ) is caused by Dam ( 痰 ) made of irregular meals, Bi Hu ( 脾虛 ), Bi Seop ( 脾濕 ), Sik Juk ( 食積 ).
2. The symptom of Dam Su ( 痰嗽 ) is as follows :  
Dam Chul Hae Ji ( 痰出咳止 )  
Hung Kyuk Da Man ( 胸膈多滿 )  
Da dam ( 多痰 )  
Dam sung ( 痰聲 )
3. The treatment of Dam Su ( 痰嗽 ) is as follows :  
Chi Dam ( 治痰 )  
Gun Bi Jo Seup ( 建脾燥濕 )  
Chung Pae Wha Dam ( 清肺化痰 )  
Sun Gi ( 順氣 )